



《X-Skull, 2019》



《Big Bird, 2018》

EUM KIXUNG

2015 M.F.A Ceramics, Kookmin University [Seoul]
2013 B.F.A Ceramics Design, Sangmyung University [Cheonan]

2019 Asyaff - Selected Artist Exhibition [DDP, Seoul]
2019 Group Exhibition - Craft Pairing [Space B-E, Seoul]
2019 Solo Exhibition - 'An Artist's Living Room
- A Progressive Growth' [HArt, Seoul]
2018 Craft Trend Fair - Selected Artist Exhibition [Coex, Seoul]

嚴基晟

2015 國民大学校陶藝學科 卒業 [ソウル]
2013 祥明大學校 セラミックス デザイン 卒業 [天安]

2019 アジアフ 招待展 [DDP, ソウル]
2019 グループ展 - クラフト ペアリング [Space B-E, ソウル]
2019 個人展 - 'アーティスト リビングルーム
- プログレッシブ グロース' [HArt, ソウル]
2018 工芸トレンドフェア 創作工房館 [Coex, ソウル]

丸沼芸術の森は1985年、須崎勝茂氏(株式会社丸沼倉庫 代表取締役)により設立され、40名以上のアーティストを輩出してきました。30年以上の支援活動の結果、村上隆氏を始め、多くの作家が現在、国内外で活躍しています。丸沼芸術の森は制作の場に留まらず、アートと社会を結ぶ架け橋となっています。今後は、国際文化交流を通じ、よりグローバルな活躍を各作家が目指せるようにレジデンスや展覧会の企画などを積極的に行い、活動の幅をさらに広げていきます。

Marunuma Art Park was established by Mr. Katsushige Susaki in 1985, and we hosted over 40 artists since then. Many artists, including Takashi Murakami, are active both at home and abroad as a result of our continued support to artists for over 30 years. Marunuma Art Park is not only a space for the conception of art but also acts as a bridge connecting art to society. We aim to further expand by broadening the range of our activities and proactively executing residency programs and exhibition plans. We hope that our artists can become more involved in international exchanges and globally more active.

嚴基晟展 / 不完全な 調和

主催：丸沼芸術の森・韓国工芸デザイン文化振興院

後援：駐日韓国文化院・Azabujuban Gallery

丸沼芸術の森
Marunuma Art Park

〒351-0001 埼玉県朝霞市上内間木493-1

TEL: 048-456-2533

FAX: 048-456-0003

<http://marunuma-artpark.co.jp>

<http://marunuma-artpark.eyes.es>

丸沼芸術の森
MARUNUMA ART PARK

Kcdf Korea Craft & Design
Foundation

駐日韓国文化院
Korean Cultural Center

Azabujuban Gallery



嚴基晟 展

EUM KIXUNG

不完全な
調和

Unbalanced Harmony

Marunuma Art Park
2019 Artists-in-residence Program No.3

2019年11月21日(木) - 22日(金)

《Collected items in Japan 2019》

오ム・키ソン
アンバランスなハーモニー

彼の制作はモノの収集からはじまる。
今回で10人目となる丸沼芸術の森アーティスト・イン・レジデンスの招聘作家、嚴基晟(オム・キソン)のこのような制作スタイルは2~3年前よりはじめられた。丸沼のスタジオには古めかしい額縁、尻尾の折れた馬の置物、錆びたショベルなど実に興味深い収集品群がすでに作品のように陳列されている。その様子は制作場所というよりはすでに展覧会場というべきであろう。

「古いモノは生きている。新しいモノは死んでいる。」とオムは言う。言い換えれば時間をため込んだ物体は満たされており、新しい物体は空っぽの物質であるとも想像できる。つまり満たされたモノは生命体であるとも言える。彼の作品はそういった生命体とのコラボレーションによって成り立つのかもしれない。

祥明(サンミョン)大学校で陶芸と舞台美術を学び国民大学大学院で陶芸を専攻したオムは卒業時から器を制作し発表してきた。そんな中でソウルの梨泰院(イテウォン)という街に居を移したことが彼の制作の変化に大きく影響を与えたという。様々な人種と価値観が混在するこの街には魅力的なモノが廃棄されており、かつて友人と車で収集を行っていたところ警察に訴えられたこともあるほどだ。異質感の醸し出す調和がその街にはあった。

来日から2ヶ月半、日本の持つ異質感に興味津々である。浮世絵や能、歌舞伎や相撲といった文化的な背景にはじまり優しすぎる日本人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まで、旅行では感じる事ができなかった日常が刺激的らしい。そのようなレジデンスを通じた彼の体験が今回の展示においてどのような形として立ち現われてくるのであろうか。最近、韓国では普通に食していた辛ラーメンがとても辛く感じられるという。この順応性がある意味で嚴基晟の持つアンバランスハーモニーなのかもしれない。

東京造形大学 教授
大橋 博



《The Head, 2018》



《MC's Chandelier, 2019》



《Solo Exhibition Installation View, 2019》



《Solo Exhibition Installation View, 2019》

불균형의 하모니

그의 작업은 물건을 수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번에 10번째 작가로 마루누마 예술의 숲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에 참가한 엄기성의 이러한 제작 스타일은 2~3년 전부터 시작 되었다고한다. 지금 마루누마 예술의 숲 그의 작업실에는 예스러운 액자, 꼬리가 부러진 말 동상, 녹슨 삽 등등 실제로 흥미로운 그의 수집품들이 이미 작품이나 된 것처럼 진열되어 있다. 그 모습은 제작을 하는 장소라기보다는 하나의 전시장을 연상시킨다.

[오래된 물건은 살아 있는 것 같고, 새로운 물건들은 죽어있는 것 같다.] 라고 엄기성은 말한다. 바꿔 말하자면 시간이 쌓인 오래된 물체는 가득 차 있고, 새로운 물체는 텅 비어있다는 느낌을 상상 할 수 있다. 결국 그에게 가득 차 있는 물건은 생명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작품은 그러한 생명체와의 콜라보 작업에 의해 성립된다고 해야 지도 모르겠다.

상명대학교에서 도예와 무대미술을 전공후, 국민대학교에서 도예를 전공한 엄기성은 졸업 후에는 원래 그릇을 제작 했었다. 그러던 중 서울의 이태원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서 그의 작품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고 한다. 다양한 인종과 가치관이 혼재된 이태원에는 그에게는 매력적인 물건들이 많이 버려져 있었다. 일찍이 지인과 차로 버려졌다고 생각한 물건을 옮기려던 중 경찰에게 연행될 정도로 말이다. 이질감들이 모여 만들어진 조화가 이태원 거리에 있었다.

일본에 온 지 2개월 반, 일본이라는 타국에서 느낀 이질감에도 큰 흥미를 느낀다고 한다. 우끼요에와 전통 가면극, 가부키와 스모 등의 문화적 배경에서부터 지나치게 친절한 일본인들의 커뮤니케이션까지, 여행할 때는 느끼지 못했던 일본에서의 일상이 그에게는 꽤 자극적이라고 한다. 이러한 레지던스를 통한 그의 일본에서의 체험은 이번 전시에서 어떤 형태로 만들어질지 궁금하다. 최근 한국에서 평범하게 먹었던 신라면이 무척이나 맵게 느껴진다고 한다. 이러한 순응의 힘이 어떤 의미에서 엄기성이 가진 불균형의 하모니가 아닌가 한다.

동경 조형대학교 교수
오하시 히로시